

인천의 극장 문화*

- 한국전쟁이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

위경혜**

<차례>

1. 머리말
2. 한미문화관과 가설극장
3. 상설극장 확산과 경쟁적 운영
 - 3.1. 도시 기능 분화와 상설극장 재정비
 - 3.2. 경쟁적 상설극장 운영
4. 생활세계와 극장
 - 4.1. 도심 극장: 위계와 혼종의 커뮤니티
 - 4.2. 도심 변두리 극장: 유희와 접점의 공간
 - 4.3. 제2도심 부평의 극장: 미군부대와 ‘양기말라’
5. 지역민/관객의 극장가기 경험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전쟁이후(약칭 ‘전후’) 인천의 영화 상영과 관람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 양상을 기술(記述)·분석하여 지역 극장 문화를 규명하였다. 전후 인천은 화교(華僑), 월남민, 미군 그리고 산업노동자 등 사회문화적인 혼종과 이산을 보여준 전형적 도시였다. 구체적으로 살핀 내용은 전후 비(非)상설극장 주도 영화 상영의 의미와 효과, 도시 공간의 기능적 분화와 상설극장 증가 및 재정비, 도시 구역별 극장의 장소적 특징 그리고 관객성 등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역 극장 관련 문헌 자료 검토를 비롯해 극장 운영 종사자와 영화 관객의 구술 증언을 재구성하고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전후 인천은 한미문화관과 상이군인의 가설극장을 통해 할리우드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는 미국

건국 신화와 미국적 가치 전파의 주요 통로로 기능했다. 1960년을 전후하여 인천 지역 극장가는 지각변동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도심과 부도심 등 도시 공간에 따른 극장의 위계화 형성과 프로그램의 차이를 수반하였다. 지역민/관객의 극장가기 경험 역시 도시의 구역별 기능과 지역민/관객의 거주지와 직업에 따라 다층적 양상을 보였다.

전후 인천의 할리우드 영화를 포함한 외화 상영은 지역민에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학습장(學習場)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물질적 풍요로움을 전시하는 서구 영화는 지역민의 척박한 현실을 상기시키며 한국사회에 대한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기술(技術) 습득을 통한 민족주의 발현을 추동시켰다.

인천 지역 극장 문화는 대규모 미군부대의 주둔에 따른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존재에서도 변별성을 보였다. 전후 인천 지역민 가운데 상당수의 여성들이 성 노동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특히, 부평의 에스컴(ASCOM)은 특정 집단이 해당 지역 극장 관객의 주요 구성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전후 인천의 극장 문화는 동시기 군부대 주둔과 이주자로 구성된 여타 재건도시 - 강원도 춘천과 원주 등 - 의 그것과 비교·검토는 물론, 한국사회 전체 극장 문화와 연관된 지역성 규명을 위한 작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가설극장, 극장가기 경험, 기지촌 성매매 여성, 문화 엘리트, 문화원, 미공보원, 미군기지, 비공식적 필름 배급, 상이군인, 순회 상영, 영화 상영, 에스컴, 유곽, 한국전쟁, 한미문화관, 화교

1. 머리말

영화는 기계복제 매체로서 단일한 속성을 갖지만, 극장은 영화 상영과 관람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생산한다. 극장은 그것이 자리한 지역의 대중문화 성격을 비롯해 지역민/관객의 집단적 무의식을 살필 수 있는 유무형의 실체이다. 즉, 극장 설립과 운영은 문화 자본의 성격을 알려주며, 극장과 지역의 공간 변화는 극장의 장소적 성격을 시사한다. 나아가 극장은 성별과 계층 그리고 연령 등 다양한 관람 주체의 욕망의 경합 장소가 되면서, 지역민/관객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재구성을 이해하는 주요 통로(channels)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영화 상영과 관람을 둘러싸고 펼쳐진 다층적 문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국전쟁 이후(이후, ‘전후’로 약칭) 인천 지역의 극장을 살핀다.²⁾ 1950년대는 제국주의-식민지체제와 냉전체제³⁾가 교체하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5A07047733).

** 전남대학교

논문의 완성을 위해 비평을 아끼지 않은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면서 미국의 패권적인 영향력과 반공 이념이 대중의 일상생활 양식을 주도한 시기였다.³⁾ 이 시기 동안 영화를 통한 미국문화 전파와 미국의 존재를 가시화한 미군부대의 주둔은 지역 도시 인천의 생활세계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전후 인천은 전재민(戰災民)과 월남민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노동자 형성 등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이력과 배경을 지닌 이주자의 도시가 되었다. 인천 지역민은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정체성 속에서 그로 인한 두 가지 문화 언어로’ 생활하는 가운데 ‘차이를 번역하고 협상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였다.⁴⁾ 따라서 이 글은 전후 인천 대중문화 형성과 지역민/관객의 정체성 형성과 재구성에 관여한 극장의 사회문화사적 역할과 의미를 기술·분석한다.

전후 인천 지역 극장 문화를 다룬 기존 연구는 한정적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건립한 ‘애관’에 집중한 연구이거나 해방기 관객성 연구 등이다. 후자는 지역 대중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1차 자료의 미공개로 연구 성과물 평가에 있어서 제한성을 갖는다.⁵⁾ 또한 기존 연구는 인천의 장소적 성격을 영화를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대중을 대상으로 기획한 주제별 연구서는 극장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과편적인 기술에 그치고 있다.⁶⁾ 이로 인해, 전후 인천 지역

극장 산업의 변화와 도시 공간과 연관성 그리고 일상생활 영위 주체로서 지역민/관객의 영화 관람 경험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전후 인천 지역에서 전개된 영화 상영과 관람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들을 제기한다. 첫째, 전후 영화 상영을 주도한 주체의 성격과 영화 상영 방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극장의 설립과 운영에서 드러난 극장 문화 자본의 성격과 그것이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변별성은 무엇인가? 셋째, 극장이 도시 공간과 맺는 연관성과 지역민/관객의 일상생활 가운데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마지막으로, 지역민/관객이 ‘극장가기 경험(cinema-going experience)’을 이해하고 독해(interpretation)하는 방식, 나아가 문화적 실천의 발현 양상은 무엇이었는지 등이다.

위의 문제의식들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지역 문헌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재구성, 극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관련자(영사기사 등)와 관객 일반의 구술 증언(oral testimony) 분석, 그리고 현장 답사(field work)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관객성(audience-ship)에 관한 분석은 연구 방법으로서 구술사(oral history)에 의존하였는데, 이를 통해 공적인 기록에서 배제된 주변화된 목소리(voices)들을 복원하여 생활세계의 역동성을 구현하고 일상생활의 영위 주체로서의 지역민/관객을 역사 서술의 중심으로 정립하였다. 나아가 전후 지역 극장의 장소적 성격에 대한 재구성과 상상을 통한 복수(複數)의 역사쓰기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 2) 이 글은 시기적으로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살피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참고 대상으로 삼는다.
- 3) 김득중·강성현·이임하·김학재·연정은·후지이 다케시, 『죽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1950년대, 반공·동원·감시의 시대』, 선인, 2007, 49면.
- 4) 류제현·김정숙·최유리, 『인천시 아이덴티티 형성의 인구·문화적 요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13권, 2010, 229~274면.
- 5)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인천 지역 극장과 영화 관람 경험을 다룬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남석, 『인천 애관(愛館) 연구 - ‘협률사’ 설립에서 1945년 광복까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제17권, 2012년 8월, 255~318쪽; 오오타 오사무,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 인천의 전기공 1씨의 일기로부터 -』, 『민족문화연구』 5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305~348면.
- 6) 인천 지역의 장소적 성격을 영화를 통해 분석한 것은 안중욱과 강성률의 연구 결과물이 있다. 이 가운데 강성률은 1960년대 인천 지역 극장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일부 극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안중욱, 『영화를

통한 인천의 장소 정체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6호, 2005, 501~516면; 강성률,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 한겨레출판사, 2014; 인천 지역 생활세계 전반에 대해 기술하여 흥미롭지만, 특정 시기 극장에 대한 심층적 기술과 분석을 포함하지 않은 연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유동현, 『골목, 살아(사라)지다: 수문통에서 백마장까지 인천골목이 품은 이야기』,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2013; 유동현, 『동인천 잇다 잇다: from 1899 to 2015 굴다리에서 채미전까지』,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2015; 인천광역시 동구 편, 『아! 옛날이야: 추억속의 동구이야기』, 인천광역시 동구, 2008.

2. 한미문화관과 가설극장

전후 지역민 대상의 적극적 영화 상영을 수행한 주체는 한미문화관(韓美文化館)이었다. 1954년 4월 18일 한미문화관은 미공보원(USIS, United State Information Service)과 인천시의 합동으로 한미친선과 ‘시민 계몽’을 앞세우며 문을 열었다.⁷⁾ 한미문화관의 활동 부서 - 영화부와 미술부, 음악부, 그리고 도서부와 사진부 등 -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곳은 영화부였다. 영화부는 195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총 526회에 이르는 순회 영사를 통해 266,340명의 관람 인원을 기록했다. 월평균 58회의 영화 상영과 평균 506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것이다.⁸⁾ 영화 상영은 한미문화관 본관(本館) 및 시의회 · 시청 · 시내의 각 학교와 동회(洞會), 도립(道立) 병원 및 YMCA회관 그리고 각 고아원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동회’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는 상영 대상자를 구분하여 성인에게는 산아제한 관련 영화를, 아동에게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animation)을 상영하였다.⁹⁾

한미문화관은 육군첩보부대(HID, 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의 초청으로 강화군 교동도에서 순회(巡廻) 영사하였다.¹⁰⁾ 또한 계절적 요인에 속박된 1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물 판매장과 부두에서도 영화를 상영하였다.¹¹⁾ 1959년에는 관(官) 주도 영화 상영에 경기도 경찰국이 동참

하여 ‘농어촌 생산 증강에 분투하는 농민과 어민’ 격려를 목적으로 순회 영사를 실시하였다.¹²⁾

한미문화관의 영화부 활동은 1950년대 인천에서 할리우드 영화 전파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1955년 『인천연감』에 실린 ‘주요 외국영화 상영 목록’ 가운데 ‘문화관’의 활동을 보면, 문화관이 시민 계몽을 표방한 문화 영화보다 액션과 모험, 그리고 서부극 장르의 할리우드 상업 극영화들을 주로 상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타산의 복수>와 <톰소야의 모험>,¹³⁾ 서부극 <킨사스 기병대>와 <네부라스카>¹⁴⁾, 그리고 <애수 Waterloo Bridge>(1940) 등을 비롯한 64편의 외화를 문화관에서 선보였다.¹⁵⁾ 이들 영화가 모두 미국 건국의 역사와 가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미문화관의 영화 상영은 곧 미국문화의 효과적 전파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1957년 6월 한미문화관이 인천문화원으로 개칭하고 시영(市營)에서 민영(民營)으로 전환하면서,¹⁶⁾ 이후의 할리우드 영화 상영은 민간 기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한미문화관이 할리우드 영화 상영의 공식적인 통로였다면, 상이군인(傷痍軍人)이 운영한 가설극장은 암묵적인 출구와도 같았다. 전후 신흥동과 화수동 그리고 송현동 등지에서 가설극장이 연달아 출현하였다.¹⁷⁾ 빈곤에 가까운 상태에 놓인 전후 상이군인들이 생계유지 방편으로 영화 상

7) 한미문화관은 “시민에 대한 계몽사업으로 미공보원에서의 제물자공급과 인천시의 건물 제공 및 인건비 사업비 지급”을 통해 운영되었다. 인천시 편, 『시세일람(市勢一覽)』, 인천시, 1954, 97면.

8) 인천시 편, 『시세일람』, 인천시, 1955, 109면.

9) 주경국(1943년생)에 따르면, 미군들은 국민학교 운동장으로 트럭을 몰고 와서 발전기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도날드 덕(Donald Duck)과 미키 마우스(Micky Mouse)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을 상영하였다. 이들 영화는 한글 자막과 사운드(sound)를 지원하지 않았다. 주경국의 구술과 질문지 답변. 2016년 현재 주경국은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미림회’ 회원으로서, 한 달에 한 번 동구 송현동 미림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주경국 질문지 답변일자 2016년 3월 5일,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10) 인천시 편, 『시세일람』, 인천시, 1954, 98면.

11) “인천시에서는 지난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어련 위관장 및 화수동 부두에서 ‘어민 위안의 밤’을 베풀고 최근의 어촌 생활 현장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여 어민들의 노고를 위안하였다.”, 「어민 위안 영화상영」, 인천시청, 『인천공보(仁川公報)』 1955년 8월 29일, 1면.

12) 「계몽영화반순회(인천)」, 『동아일보』 1959년 6월 27일, 조간 4면.

13) 각각 <타산과 그의 친구 Tarzan and His Mate>(1934)와 <톰소야의 모험 The Adventures Of Tom Sawyer>(1938)의 한국어 표기이다.

14) 각각 <The Kansas Terrors>(1939)와 <The Nebraskan>(1953)의 한국어 표기이다.

15) 경기문화사(京氣文化社), 『인천연감』, 1955, 226~227면.

16) 인천문화원의 초대원장은 한미문화관 시절부터 활동한 화가 우문국(禹文國)이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의 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1974, 242면.

17) 고일 저, 『인천석금(仁川昔今)』, 경기문화사, 1955, 101면.

영을 시작한 것이다.¹⁸⁾ 사회집단으로서 재향군인의 위세도 상이군인들의 가설극장 영업에 힘을 보탰다.¹⁹⁾ 가설극장은 중구(中區) 도원동 근처의 ‘용사회관’과 동구(東區) 송림동 ‘재건회관’ 등 상이군인의 후생(厚生) 기관이었다. 최대 70~80여 명을 수용하는 용사회관과 재건회관에서는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16mm 필름들을 상영했는데, 이들 영화는 국내 개봉 이전 또는 개봉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²⁰⁾ ‘회관’들은 이러한 영화들을 하루 2~3회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상영했으며, 한글 자막과 사운드(sound)를 지원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영사실 옆에 자리한 변사(辯士)의 연행을 수반하였다. 용사회관은 건물 외곽에 극장 표식만 했을 뿐, 의자도 없어 계단식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아 놓은²¹⁾ 천막 형태의 가건물에 가까웠다. 용사회관과 재건회관은 196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누렸는데,²²⁾ 이는 이들 극장

이 상영한 서부극 장르의 특성 즉, 명확한 선악 구도와 감각적인 화면 구성과 저렴한 입장료 때문이었다.

상이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설극장 운영에 참여한 경우는 동구 화수동 ‘자활극장’에서 찾을 수 있다. 자활극장은 디제시스(diegesis) 사운드를 제공하는 영화를 상영했지만, 한글 자막도 없었고 상영 도중 필름이 자주 끊겼다. 상영 작품의 주종을 차지한 것은 역시 서부극이었다.²³⁾ 요컨대, 1960년을 전후하여 지역 상설극장 증가와 재정비 이전까지 한미문화관과 가설극장은 지역 영화 상영 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사회 건설의 모델로서 미국을 적극 소개하였다.

- 18) 1954년 12월 말 현재 인천의 군사 원호(援護) 대상자는 8,693 가구(家口)에 36,476명이었다. 하지만 원호 수혜자는 412 가구에 1,346명으로 전체 원호대상 가구와 대상자 가운데 각각 4.7%와 3.7%에 불과했다. 고일 저, 『인천석급』, 경기문화사, 1955, 101면.
- 19) 「군유가족(軍遺家族) 위안영화회(慰安映畫會), 인천시병무협회(仁川市兵務協會) 주최, 인천시청, 『인천공보』 1953년 6월 3일, 2면; 「재향군인경기도지부 창립1주년기념대회, 3천여 건아의 의기충천」, 인천시청, 『인천공보』 1953년 3월 25일, 2면.
- 20) 신용길(1942년생) 구술. 인천 출생 신용길은 신문기자인 매형 덕분에 신홍국민학교 재학 시절부터 영화를 관람하였다. 그는 중학생이던 1955~1957년 사이 용사회관과 재건회관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1960년대 신용길은 거주지 신포동과 가까운 중구 개봉관 동방극장과 애관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지만, 입장료가 저렴한 동구 금곡동 재개봉관 문화극장 역시 자주 들락거렸다. “취미삼아 영화를 열심히” 관람한 그가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한 이유는 영화가 보여주는 ‘속도감’ 때문이었다. 1970년부터 1994년까지 신용길은 경인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극장 운영자들과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했다. 또한 경인일보사 퇴직 이후 1년 동안 『월간 인천』 편집장을 지냈으며 인천문화원 도서 발간에 참여하였다.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주경국(1943년생) 질문지 답변. 질문지 답변일 2016년 3월 5일; 김윤식(1947년생) 구술. 김윤식은 11살이던 1958년 변사 연행의 애니메이션을 용사회관에서 보았다. 김윤식은 2016년 현재 인천문화재단 대표 이사이며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구술일자 2015년 8월 31일.
- 21) ‘김윤식의 인천 역사 산책: 14. 사라진 인천의 영화관들’, <http://blog.daum.net/alzade57/17946072>. 블로그 게재일자 2010년 11월 17일.
- 22) 전후 상이군인이 운영한 가설극장은 1955년 후반 극장 지정좌석제 실시와 일정 부분 연관된다. 1955년 12월 1일부터 정부가 극장 좌석지정제를 실시하면서 상이군인 무료입장을 문제시하거나 군인에게 부여한 반액 입장료 할인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후 재건 과정에서 상이군인으로 표상된 전쟁의 흔적은 가설극장이라는

3. 상설극장 확산과 경쟁적 운영

3.1. 도시 기능 분화와 상설극장 재정비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7일, 『대중일보』 영화 광고란은 인천부(仁川府) 소재 극장으로 동방극장(東邦劇場)과 애관(愛館, 이후 애관극장)²⁴⁾ 그

공간으로 한정되었으며, 상이군인의 존재는 신생 상설극장 증가와 함께 가시적 영역에서 점점 사라졌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무료입장 막으라’ 이대통령 극장문제 담화」, 『동아일보』 1955년 11월 23일, 석3면; 「전과 다름없는 극장, 지정좌석제도는 말뿐이었나」, 『조선일보』 1955년 12월 2일자, 3면.

- 23) 이한영(1943년생) 구술. 이한영은 인천중학교와 체물포고등학교 출신으로 전 인천시 상도사업본부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현재 미림회 회원이다.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7월 22일 그리고 8월 28일.
- 24) 애관이 애관극장으로 상호를 변경한 시기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 글은 1960년 애관극장의 ‘신장개관’을 그 기점으로 짐작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1960년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애관으로, 1960년 이후 시기는 애관극장으로 표기한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9월 5일자, 1면.

리고 ‘근일 중 개관’을 앞둔 인천영화극장을 소개하였다.²⁵⁾ 앞서 언급한 극장들은 모두 인천의 중구에 자리한 극장들로, 동방극장과 애관은 각각 ‘활동상설’과 ‘영화상설’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단속적(斷續的)인 영화 상영 및 공연물 중심의 프로그램(program) 구성을 방증(傍證)한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에 이를 무렵부터 지역 극장들이 더 이상 ‘상설’을 강조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기적 영화 상영의 정착을 짐작할 수 있다.

인천은 인구 증가 및 도시 기반시설 형성과 함께 구역(區域)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화한 곳이었다.²⁶⁾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 보면, 근대 사회의 출발과 함께 중구는 도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인 반면, 동구는 동인천역과 양키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등 지역민의 일상생활 공간이었다. 1950년대 중후반 무렵, 동구 만석부두와 동일방직 등 노동자 집결지에 가까운 화수동 인천극장과 제물포역 방향의 채소와 청과물 시장을 따라 미림극장(송현동)과 문화극장(금곡동 ‘배다리삼거리’) 그리고 현대극장(송림동 송림오거리)이 문을 열었다.²⁷⁾ 이들 극장의 출현은 곧 지역 극장의 확산 및 상설극장의 정착을 의미했다. 극장 개관을 전후하여 화평동 수문동 근처 2층 건물에서 번사 연행과 함께 영화를 상영

한 향도극장이 사라졌고,²⁸⁾ 가설극장이었던 평화극장이 탈바꿈하여 미림극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²⁹⁾ 또한, 1955년 동구 화수동에 개관한 시민극장이³⁰⁾ 이듬 해 화재로 전소(全燒)하자,³¹⁾ 3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같은 자리에 인천극장이 문을 열었다. 처음 인천극장은 가설극장 ‘자활극장’ 인근 골목에서 재개봉관으로 출발했지만 중구 전동과 동구 화수동 그리고 화평동 세 갈래가 만나는 ‘화평운교’ 옆에 자리하여 활기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다.³²⁾

신생 극장의 등장은 동구 지역을 거쳐 북구와 남구 지역으로 이어졌다. 1956년 부평극장이 기존의 ‘부평영화극장’이라는 명칭을 변경해 800석 규모로 등장했고, 1958년에는 남구 송의동에서 장안극장이 영업을 시작했다.³³⁾ 덧붙이자면, 공적 기관으로 출발한 공연장 역시 영화 상영에 복무했는데, 1962년 현재 인천시장이 대표를 맡은 중구 송학동 소재의 시민관(市民館)이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다.³⁴⁾ 1960년대 초반 지역 신문 광고에

25) 『대중일보』 1945년 10월 7일자, 고일(高逸)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개관 극장은 애관과 표관(瓢館) 그리고 동방극장과 인천영화극장이었다. 이 가운데 동방극장과 인천영화극장은 ‘뉴스-극장’이었다. 인천영화극장은 해방이후 건국준비위원회 집합소이었으나 영업 정지를 당해 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표관은 해방이후 문화관(文化館)으로 개명하고 시영(市營) 기관으로 변화했으나 한국전쟁 동안 사라졌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고일 저, 『인천석급』, 경기문화사, 1955, 101면; 『인천신문』 1960년 12월 29일, 2면.
26) 인천시의 구역(區制) 실시는 1968년의 일이었다. 1968년 인천시는 구역 공포와 실시에 따라 중구와 동구 그리고 남구와 북구 등 4개구로 나뉘었다. 1968년 이전까지 구역 별로 뚜렷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이 글은 편의상 구역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인천광역시 중구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사: 상(上) 발자취와 사람들』, 인천광역시 중구문화원, 2010, 580면.
27) 김기제 편, 『한국연예대감』, 성영문화사, 1962, 491~492면.

28) 향도극장의 운영은 오래가지 않았고, 극장 건물은 적십자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장로교 5교회로 변화했다. 이한영(1943년생)과 주경국(1943년생) 구술. 이한영은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 출신으로 전 인천광역시청 공무원이며 현재 미림회 회원이다.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29) 미림극장 역사는 1957년 11월 송현동 중앙시장 진입로에 ‘천막극장’ 형태인 평화극장에서 무성영화를 상영하면서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유동현, 『골목, 살아(사라)지다. 수문통에서 백마장까지 인천골목이 품은 이야기』,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2013, 23면.
30) 경기문화사(京氣文化社), 『인천연감』, 1955, 267면; 시민극장은 1955년 3월 1일 이민(李民)과 김태훈(金泰勳) 등이 새로 설립하여 연극 전문 무대극을 공연한 것으로 기록된다. 고일 저, 『인천석급』, 경기문화사, 1955, 101면.
31) 『인천에 대화(大火) 시민극장 전소(全燒)』, 『동아일보』 1956년 5월 26일자, 석3면.
32) 인천광역시 동구 편, 『야! 옛날이야: 추억속의 동구이야기』, 인천광역시 동구, 2008, 78면.
33) 북구 부평동 229번지에 자리한 부평극장은 1953년 이미 ‘부평영화극장(관주 임양성任梁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었다. 인천시청, 『인천공보』 1953년 6월 17일, 2면; 김기제 편, 『한국연예대감』, 성영문화사, 1962, 491~492면.
34) 김기제 편, 『한국연예대감』, 성영문화사, 1962, 491면; 김윤식에 따르면, 시민관은 1922년 설립된 공회당 후신으로서, 한국전쟁 동안 파괴된 건물을 수리하여 1958년경부터

시민관은 ‘시민’이라는 상호로 자주 등장하였다. 1956년 화재로 동구 시민극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시민’극장은 ‘시민관’을 지칭하였다. 1,160석 대규모 극장인 시민관은 독자적으로 또는 여타 극장과 함께 ‘동시개봉’을 하며 상업극장의 면모를 보였다.

인천 지역에서 극장 산업의 지각 변동이 두드러진 시기는 1960년 4·19 혁명 이후부터였다. 4·19 이후 기존 극장들이 개축(改築)하는 한편, 신생 극장들이 속속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³⁵⁾ 남구 송의동 장안극장이 극장 시설 개조를 위해 휴관한 가운데,³⁶⁾ 송의동 공설운동장 옆에 도원극장이 문을 열었다.³⁷⁾ 또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중구 선화동 유곽이 송의동으로 이전하여 성매매 집창촌(集娼村)인 ‘엘로우 하우스(yellow house)’를 형성하자³⁸⁾ 도화동 중앙극장이 문을 열었다. 점점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신생 극장들이 등장하자, 중구의 극장가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포동 동방극장 맞은편에 인천키네마가 문을 열었고, 수인역과 송의로터리 사이 변화가에 세계극장과 자유극장이 개관하였다. 자유극장은 “근대식 건축, 문화적 설비, 화려한 휴게실들” 자랑하며, 기존의 극장과 차이를 강조하였다.³⁹⁾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애관극장 역시 극장가 변화에 혁신적

인 대응으로 맞섰다. 1960년 9월 6일 <산아제한>(임희재, 1960) 개봉을 신문 광고에 게재하면서 ‘신장개관(新裝開館)’을 널리 알린 것이다. 애관극장은 “싸운드 스크린 완비”와 “현대시설의 대휴게실” 그리고 “팔미도, 월미도, 작약도를 조망할 수 있는 옥상(屋上) 전망대”를 강조하면서⁴⁰⁾ 여타 극장과 절대적인 차별화를 부각시켰다. 도시 전체를 전망하는 파노라마(panorama)적 시각을 제공하는 전망대 설치의 근대극장의 시작으로서 애관극장의 자존심을 보여준 것이었다.

애관극장과 더불어 일제강점기에 극장의 기원을 둔 인천키네마는 프로그램과 지역 극장 내 위상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였다.⁴¹⁾ 1961년 1월 1일 인천키네마는 개관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유권이 수입영화사 세기상사로 이전하면서 프로그램이 외화 상영으로 채워졌다.⁴²⁾ 당연히, 세기상사 흥행작 <벤허 Ben-hur>(1959)는 인천키네마에서 ‘한 달 동안이나’ 스크린에 올랐고, 이국정취 물씬 풍기는 뮤지컬 장르 영화 <남태평양 South Pacific>(1958)과 70mm 필름으로 제작한 <강강 Can-Can>(1960)이 스크린을 채웠다. 할리우드 스펙터클(spectacle)을 경험할 수 있는 영화는 <나바론 요새 The Guns Of Navarone>(1961)와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시민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김윤식의 인천 역사 산책: 14. 사라진 인천의 영화관들’,

<http://blog.daum.net/alzade57/17946072>. 블로그 게재 일자 2010년 11월 17일.

35) 1960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장안극장·인천극장·미림극장·자유극장·문화극장·도원극장·동방극장·애관극장·세계극장·시민관 등 10개 극장이 신문 광고 지면을 차지하였다.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2월 31일, 1면.

36) 장안극장은 개인 의자, 최신 영사막, 영사기, 음향, 난방기 그리고 기타 내부 등 극장 전체를 개조하기 위해 1960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휴관했다.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0월 31일, 2면.

37) 도원극장은 1960년 11월 17일 자신의 개관을 지역 신문에 알렸다.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1월 17일, 1면.

38) ‘엘로우 하우스’는 미군부대에서 가져온 노란색 페인트로 집창촌 건물 외관을 칠하면서 동명으로 불렸다. 미군 역시 ‘엘로우 하우스’ 성 구매자 가운데 일부를 차지하였다.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52~54면.

39)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1월 27일, 2면.

40)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9월 5일자, 1면.

41) 인천키네마는 자신의 역사가 일제강점기 표판에서 시작하였으며, 해방이후 문화관(文化館)으로 개칭하였으나 한국전쟁 동안 파괴된 것을 안타까워하여 극장을 신축, 개관하였음을 홍보하였다.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2월 29일, 2면; 인천키네마는 2016년 현재 KEB하나은행 인천금융센터(구. 외환은행)으로 바뀌었다.

42) 인천키네마 프로그램 구성은 전승훈(1942년생) 구술을 참고. 전승훈은 인천키네마 개관과 함께 입사하여 4~5년 동안 영사기사로 일했다.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인천키네마에서 재직하면서 독학으로 앰프(amplifier) 관련 기술을 터득하여 영사기에 능통하였다. 그는 세기상사가 경기도 의정부 문화극장을 사들이자 문화극장으로 옮겨 영사기사 일을 계속하였다. 이후, 구로공단 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년 동안 일하였다. 1960년대 후반 전승훈은 동방극장 영사기사와 영사주임으로 근무하였고 1975, 6년경 사직하였다.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인천 지역 극장 간 경쟁은 유사한 상호(相互)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의 특징적 사례는 동인천역 앞 인천영화극장(또는 인영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인천영화극장은 ‘근일 개관’을 앞두고 있었지만, 1946년 12월에 이르러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대신에 인영극장이 등장한다. 1954년 『시세일람(市勢一覽)』에서 다시 인영극장을 볼 수 있으나, 1955년 『인천연감』에서 인영극장은 사라지고 인천영화극장이 자리한다.⁵¹⁾ 즉, 인천영화극장이 인영극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거나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영극장은 1962년 『한국연예대감』과 1970년 『영화연예연감』과 같이 서울에서 집계한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인천 지역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1962년 인영극장이 건물을 신축·재개관하여⁵²⁾ 1970년 초반까지 운영한 것으로 기록된다.⁵³⁾ 흥미로운 사실은 인영극장 폐관 이후 ‘동인천길병원’ 맞은편에 ‘인영극장’과 한 글자만 다른 ‘인형극장’이 문을 열었으며, 일부 지역민/관객들이 인현동에 ‘인현극장’이 존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점이다.⁵⁴⁾ 그만큼 지역을 강조한 ‘인천’과 동인천역 변화가 ‘인현동’ 그리고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영화’의 조합이 강렬하고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1959~1960년대 초반에 개관한 동구 회수동 ‘인천극장’과 중구 신포동 ‘인천키네마’ 역시 전후 상호를 통한 극장 간 경쟁의 일면을 확인시킨다.

51)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대중일보』 1945년 10월 7일; 오오타 오사무,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 인천의 전기공 1씨의 일기로부터 -』, 『민족문화연구』 제5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336쪽; 인천시 편, 『시세일람』, 인천시, 1954, 103~104면; 경기문화사(京氣文化社), 『인천연감』, 1955, 267면.

52) 1962년 인영극장이 인천시의 극장 개축 명령에 따라서 건물을 허물고 신축 재개관하는 와중에 극장 목록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유동현, 『동인천 잇다 잇다: from 1899 to 2015 굶다리에서 채미전까지』, 인천광역시 대면인실, 2015, 104면.

53) 1977년 『영화연감』에서 인영극장 존재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영극장은 1970년대 초중반 폐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영화진흥공사, 『영화연감』, 1977; 인영극장의 마지막 운영자의 아들 김보섭은 인영극장의 폐관 연도를 1970년대 초반으로 기억한다. 김보섭(1955년생)의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21일.

54) 주경국(1943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극장 간 경쟁은 관객 확보에서도 나타났다. 영화 매체를 계몽 수단으로 인식한 지역 여론 주도자의 열의가 이러한 경쟁에 한 몫 거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55년 인천중학교장이 <춘향전>(이규환, 1955)을 ‘좋은 영화’로 추천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하여 동방극장에서 단체 관람을 이끌어 냈다.⁵⁵⁾ 그러나, 1960년대 <춘향전>(홍성기, 1961)을 뛰어넘는 최고의 인기를 누린 <성춘향>(신상옥, 1961)은 애관극장의 차지였다. 앞서 예와 같이, 학교장 추천으로 추진되는 단체 관람은 한국영화를 넘어 전쟁 소재의 외화들로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은 <사하라 전차대 Sahara>(줄탄 코다 Zoltan Korda, 1943)와 서부극 <리버티 발란스를 쏜 사나이 The Man Who Shot Liberty Valance>(존 포드 John Ford, 1962) 등의 영화들이었다.⁵⁶⁾ 나아가 <아프리카의 횡단>과 같은 교육영화로 짐작되는 영화도 있었다. 이 영화는 1956년 8월, 5일 동안 지역 국민학생과 중고등학생 7,000여명을 애관으로 불러들였는데,⁵⁷⁾ 이는 주요 교육매체로서 영화를 인식한 지역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960년 후반의 극장 간 경쟁은 입장료 할인 등 가격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는 기존 극장의 리모델링(remodeling)과 관람 환경 및 관객 편의성을 고려한 신생 극장의 등장과 함께 벌어진 일이었다. 1960년 12월 29일 시민관이 <비극은 없다>(홍성기, 1959)와 <카츄샤>(유두연, 1960) 그리고 <재생>(홍성기·박찬, 1960)을 연속 상영하면서 입장료를 100환으로 책정하거나,⁵⁸⁾ 재개봉관 승의동 장안극장이 <내 마음의 노래>(박성복, 1960)을 50환으로 균일화하였다.⁵⁹⁾ 심지어, 지역 극장을 대표하는 애관극

55) 신용길(1942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56) 김윤식(1947년생) 구술. 김윤식은 인천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장 길영희 선생의 교육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다. 교육운동가 길영희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구술일자 2015년 8월 31일.

57) 『극장 ‘애관’의 세금 포탈(浦脫) 적발(摘發) 인천』, 『동아일보』 1956년 9월 14일자, 석3면.

58)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2월 29일, 1면.

59)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2월 1일, 2면.

장도 정오까지의 외화 입장료를 200환으로 정하며 입장료 할인 경쟁에 나섰다. 이윤 확보를 위한 극장 간의 경쟁은 복수(複數) 극장의 ‘동시 개봉’이라는 협업 형태로 나아갔고, 그것은 시민관과 자유극장 그리고 동방극장과 자유극장에서 볼 수 있었다.⁶⁰⁾

한편, 지역 여론 주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상대적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변두리의 극장들은 직접 호객 행위에 나섰다. 남구 송의동에 자리한 장안극장은 건물 밖에 위치한 스피커를 통해 대중가요를 흘러보내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⁶¹⁾ 이는 군(郡) 단위 지역 극장의 홍보 방식으로, 도심에서 떨어진 재개봉 극장일수록 연행(演行) 방식의 홍보 관행을 1970년대까지 이어나갔다. 미림극장이 영화 상영 이전 장내 방송을 통해 상영 영화의 내용과 주연 배우를 알리고, 상영 예정작에 대하여 “현대인이 꼭 보셔야 할 필견(必見)의 영화”임을 강조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⁶²⁾

60) 시민관과 자유극장은 <청춘 일번지>(정일택, 1960)와 <스타 탄생>(이태환, 1960)을 동시 개봉하고, 동방극장과 자유극장은 <철완 골리아스 Goliath and the Barbarian>(1959)를 동시 개봉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2월 3일 1면과 12월 10일 1면 그리고 12월 16일 2면.

61) 김윤식(1947년생)은 어린 시절 장안극장 근처에 살면서 가수 도미(본명 오종수)의 ‘청포도 사랑’(1956년)과 박재란의 ‘푸른 날개’(1961년)를 저절로 외우게 되었다고 전한다. ‘김윤식의 인천 역사 산책: 14. 사라진 인천의 영화관들’, <http://blog.daum.net/alzade57/17946072>. 블로그 게재 일자 2010년 11월 17일.

62) 극장은 국가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계도(啓導)의 공간이었다. 미림극장의 영화 광고는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구청(區廳)에서 발송한 공문(公文)을 관객에게 전달한 이후 이뤄졌다. 조점용(1945년생) 구술. 조점용은 충북 음성군에서 출생하여 서울 서라벌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인근 서라벌예술대학 학생들의 영화 촬영 활동을 구경하며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무극극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누나의 권고에 따라 무극극장 영사실에서 기술을 익혀 영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충북 보은군 보은극장에서 2년 동안 영사기사로써 경력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 생활을 시작하였다. 부평 금성극장에서 단기간 영사기사로 재직한 이후, 서울특별시로 옮겨 중구 중림동 뉴서울극장에서 2년 정도 일하였다. 이후, 원주 군인극장에서 영사병으로서 군 복무를 수행했으며, 군대를 제대하고 부천 신세기극장(이후, 중앙극장으로 바뀜)을 거쳐 인천 미림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점용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미림극장

홍행을 둘러싼 극장 간 경쟁은 극장 공간 재편과 관련하여 더해졌다. 1955년 11월 이승만 정권이 극장의 좌석지정제를 실시하면서, 영화 상영에 있어 공간 정비를 시도한 것이다.⁶³⁾ 그러나 이 좌석지정제는 실시 3년이 지난 1958년 12월, 서울시 경찰국이 제도의 불이행과 연루된 경찰을 파면 조치한다는 공지를 할 정도로⁶⁴⁾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 극장의 좌석지정제가 이행되지 않자 지역 언론은 극장을 비리와 무질서 그리고 위험 공간으로 표상하기 시작하였다. 한 가지 예로 1956년 9월, 애관극장의 세금 포탈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애관극장이 동년 8월 28일부터 5일 동안 시내 국민학생과 중고등학생 6,772명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입장세 197,000환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⁶⁵⁾ 또 1960년 신흥동 개봉관인 세계극장 역시 490석에 해당하는 입장세만 납부하고 실제로는 극장 내부에 666석을 설치하여 법정 좌석 초과를 이유로 고발당했다. 1960년 4월 3일 일요일에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 Faibles Femmes>(미셸 부아스롱 Michel Boisrond, 1959)를 상영하면서 법정 좌석수의 2배를 넘는 1천여 명의 관객을 입장시켰기 때문이다.⁶⁶⁾

에서 근무하였으며, 영사실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이후에도 4~5년 동안 미림극장 영업을 돌보았다. 또한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10여 년 동안 극장 일을 병행하면서 정신지체자 보호소 등을 방문하여 영화 상영 봉사 활동을 하였다. 순회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군부터 경북 영덕까지 걸쳐 있었다. 그는 전국영사 기사협회 사무국장도 역임하였다. 구술일자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2월 26일; 2016년 2월 2일자 경인일보에 따르면, 조점용은 1972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미림극장에서 영사기사로 재직하였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202010000437>.

63) 서울 소재 극장은 좌석지정제에 대해 이윤 감소를 이유로 불만을 터뜨렸지만, 관객은 관람환경 개선을 이유로 환영했다. 극장 측은 명절 등을 이유로 좌석지정제를 준수하지 않았다. 「극장측에서는 비명, 관객층은 호평. 좌석지정제 등 실시 70일 후의 실태」, 『조선일보』 1956년 2월 13일, 조3면; 「좌석지정제도 무시, 구정 시내 일부극장은 대혼란」, 『조선일보』 1956년 2월 13일, 조3면.

64) 「극장지정좌석제 경찰서 실태조사」, 『동아일보』 1958년 12월 12일, 석2면.

65) 「극장 ‘애관’의 세금 포탈(滯納) 적발(摘發)(인천)」, 『동아일보』 1956년 9월 14일, 석3면.

66) 「법정좌석 무시 2배나 초과매표(인천)」, 『동아일보』 1960년 4월 6일, 석4면;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는 알랑 드롱(Alain Delon)의 존재를 한국 팬에게 각인시킨 슬랩스

상영 공간의 재정비 기간 동안 탈세 혐의로 주목을 받은 것은 도심 개봉관만의 일이 아니었다. 변두리 재개봉관인 장안극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중구 소재의 극장들과 달리 장안극장은 범죄의 온상으로 지역민에게 소개되었다. 1959년 10월, 언론은 장안극장을 ‘손님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정원 외 수백 명의 추가 입장’과 더불어 관객들의 ‘아우성 소리’로 영화 관람자체가 불가능한데다, ‘관중에 밀려 의복이 찢어지고 소매치기도 당하는’ 등 무질서가 난무한 곳으로 보도하였다.⁶⁷⁾ 이는 좌석지정제의 시행 초반 서울에서 “교외지대에 있는 군소 극장”의 무료 입장객이 극장의 ‘풍기(風氣)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⁶⁸⁾ 또 장안극장 말고도 송의동에 자리한 도원극장의 전기기사가 건물 천장 전구를 수선하던 도중 실족,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⁶⁹⁾ 변두리 극장일수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공간으로 점점 인식되었다. 이처럼 지역 극장이 탈세와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되면서도 좌석지정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흥행 수익을 둘러싼 극장 간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극장 간 경쟁은 시류(時流)의 변화를 일찍이 감지한 도심 극장에서 두드러졌다. 1961년 2월 19일, 동방극장에서 <젊은 육체들 Beat Girl>(에드몬드 그레빌 Edmond T. Gréville, 1960)를 개봉하였다. 그런데 이 영화의 예고편은 여성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편집 없이 상영하여, 당시 청소년들에게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⁷⁰⁾ 경험을 안겨주었다. 예고편과 달리 개봉 작품에서는 ‘노출 씬(scene)’을 삭제했지만, ‘문제적 장면’

틱(slapstick) 코미디 장르 영화이다. 1960년 12월 세계극장 다음으로 재개봉관 도원극장이 <아가씨 손길을 부드럽게>를 상영하여 흥행을 이어갔다.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2월 6일, 2면.

- 67) 『소매치기가 횡행 초만원된 극장내(남인천)』, 『동아일보』 1959년 10월 30일자, 4면.
 68) 『극장의 생태: 제일 큰 두통 무료입장 문란한 하류층 풍기문제 위생불량, 지정좌석제 실현?』, 『동아일보』 1955년 11월 23일자, 석3면.
 69) 『천정서 떨어져 사망, 극장 전기기사(인천)』, 『동아일보』 1962년 4월 6일자, 석3면.
 70) 신용길(1942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의 사전 편집 불이행은 흥행을 쫓아서 일시적인 민주주의 분위기에 편승한 전략이었다.⁷¹⁾ 해당 극장이 <젊은 육체들>의 개봉을 앞두고 “상영 불가의 문제작”을 강조한 신문 광고로⁷²⁾ 지역민/관객의 관심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동방극장은 우선적인 검열 장소였다. 동방극장에서 <에이프릴 라브 April Love>(헨리 레빈 Henry Levin, 1957)를 상영하는 도중,⁷³⁾ 무장 군인들이 ‘깡패 소탕’을 명목으로 무단 진입한 것은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⁷⁴⁾

4. 생활세계와 극장

4.1. 도심 극장: 위계와 혼종의 커뮤니티

인천의 중구 경동과 신포동은 세계의 변화를 가장 신속히 접한 곳이었다. 애관극장을 포함한 이곳에 들어선 여러 극장들은 근대성의 표상 그 자체였다.⁷⁵⁾ 이들 극장은 서구의 근대 문화를 전파하는 공간이었고, 그것

71) <젊은 육체들 Beat Girl>(1960)은 4·19 혁명 이후 탄생한 민간 주도 영화 심의기구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의 ‘상영 보류 결정’과 혁명 이전까지 영화 검열 업무를 담당한 문교부의 ‘상영 허가’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 자리한 작품이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이영일 지음,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284~285면; 『영륜 체면 잃게 돼. 문교부 「젊은 육체들」 상영 허가』, 『한국일보』 1961년 2월 16일, 3면과 「[메아리]」, 『한국일보』 1961년 2월 16일, 석1면. 한국영상자료원,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 1958~1961』, 공간과 사람들, 2005, 792~793면 인용.

72)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1년 2월 18일, 1면.

73)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1년 5월 19일, 2면.

74) 신용길(1942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75) 애관극장 역사는 1895년 한국 최초 옥내극장 ‘협률사(協律社)’부터 시작하였다. 협률사는 ‘축항사(築港舍)’를 거쳐 1924년 ‘애관(愛館)’으로 개명하고 2016년 현재까지 영업 중인 최장수 극장이다. 애관극장의 등장과 변천에 대해 다음을 참고. 김남석, 『인천 애관(愛館) 연구 - ‘협률사’ 설립에서 1945년 광복까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을 주도하는 지역 문화 엘리트(culture elites)의 회합 장소였다. 1947년 12월 13일 창단한 인천관현악단의 서양고전 음악을 소개한 곳은 인천영화극장과 문화관⁷⁶⁾ 그리고 애관 무대였다.⁷⁷⁾ 1950년대 동방극장은 영화 상영관이자 문화 엘리트의 정보 교환과 사교 장소로 기능하였는데, 이는 동방극장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등대다방’을 비롯하여 다방(茶房)이 중구에 집중적으로 들어선 것 때문이었다.⁷⁸⁾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문충 회원들은 등대다방에서 회합을 가졌으며, 1954년에는 등대다방과 그리 멀지 않은 신포동 30번지에 위치한 ‘유토피아’에서 미술전과 시화전 등을 개최하였다.⁷⁹⁾ 이러한 까닭에 동방극장은 다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문화 엘리트 영향력의 자장(磁場) 안에 놓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1954년 『시세일람』에 기록된 동방극장과 애관의 흥행 성적에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애관이 영화 6회와 연극 458회를 기록한 반면, 동방극장은 오직 영화만 1,652회 상영하였다. 이들 극장의 총수입을 비교해 보면, 애관이 5,714,100환(영화 61,100환 · 연극 5,653,000환)인 것에 비하여, 동방극장이 7,321,840환으로 월등하게 앞섰다. 입장 인원 역시 차이가 났는데, 애관이 57,141명일 때 동방극장은 81,377명이었다. 주목할 것은 흥행 횟수와 총수입 그리고 입장 인원에서 애관을 앞지른 동방극장의 정원수가 애관 1,056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5석이라는 사실이다.⁸⁰⁾ 이것은 동방극장의 하루 평균 영화 상영 횟수가 4.5회이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동방극

장은 외화 상영이 압도적이었다. 1957년까지 한국영화 편수가 30개 이내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동방극장 상영 작품은 절대적으로 외화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¹⁾

1950년대의 동방극장과 애관극장의 프로그램 차이는 확연했다. 절대적으로 외화 상영에 주력한 동방극장과 달리, 애관은 연극 상연에 집중하여 괄목할만한 수입을 올렸다. 1954년 애관의 수입은 문화극장과 부평극장과 함께 벌어들인 연극의 총수입(6,078,600환) 가운데 93%를 차지하였다. 이는 극장의 주요 무대 프로그램이었던 임춘앵으로 대표되는 여성국극(女性國劇)의 인기를 의미한다. 전후 동방극장이 외화를 통해 서구 문물을 전달하고 전쟁의 기억을 미화시켰다면, 애관극장은 관객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전후 피폐한 지역민을 위로하였다.

1960년대 들어 동방극장/애관극장의 영화 상영/연극 상연 프로그램 구도는 도심과 부도심 또는 변두리 극장의 그것으로 옮겨갔다. 1961년 중순까지 도심에서 밀려난 악극단 공연이 변두리의 재개봉관 무대를 간헐적으로 찾으며 흥행을 올렸기 때문이다.⁸²⁾ 1960년대 초반까지 다수의 재개봉관에서 열린 악극과 쇼 단체 공연 인기는 ‘차력(借力)쇼’까지 불러왔다. 즉, 시민관이 “한국의 타잔 차력사 권준석과 그 일행”을 무대에 올린 것이다. 이 차력쇼는 중구 시민관 공연을 마치고 남구 송의동 장안극장에

인천학연구』 제17권, 2012년 8월, 255~318면.

76) 문화관은 일제강점기 개관한 표관의 후신을 말한다. 고일 저, 『인천석급』, 경기문화사, 1955, 101면.

77) 『인천시향 50주년. 첫 상임지휘자 김중석』, 『인천일보』, 2016년 2월 19일자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no=694186>

78) 1954년 현재, 인천 전체 23개 다방이 모두 중구에 몰려있었고, 이 가운데 8개 업소가 신포동에서 영업해 ‘다방 거리’를 형성하였다. 김윤식,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다방』, 한겨레출판, 2012, 83면.

79) 김윤식,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다방』, 한겨레출판, 2012, 80~88면.

80) 동방극장 기록에 미치지 못하지만 인영극장 역시 영화만 847회 상영하였다. 인천시 편, 『시세일람』, 인천시, 1954, 103~104면.

81) 1950년대 후반 동방극장은 서부극과 전쟁 소재 <검객 시라노 Cyrano De Bergerac>(마이클 고든 Michael Gordon, 1950)와 <세인 Shane>(조지 스티븐슨 George Stevens, 1953) 그리고 <사하라 전차대 Sahara>(1943) 등을 상영하였다. 차칭 영화 마니아 신용길(1942년)은 이들 영화를 중학교 재학 당시인 1956~1958년에 걸쳐 관람하였다.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82) 1960~1961년 사이 다음과 같은 공연들이 극장 무대를 차지했다. 즉, 인천극장의 진경 여성국악단 <사랑의 상상봉>, 도원극장의 <민요 코메디쇼 각도 굿노리, 방아타령>, 인천키네마의 <성보가극단 대공연>, 그리고 현대극장을 찾은 보리여성국악단의 <화살은 사랑을 신고(전 4막 5장), 두메 총각(전경)> 등이다. 공연물의 흥행이 좋았던 도원극장은 쇼(show)단을 초청하여 <뉴 스타쇼 누가 누가 잘하나, 전승남 8남매 크립>으로 지역민의 관심을 다시 끌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2월 8일 2면, 1961년 1월 1일 5면, 1961년 2월 25일, 1961년 3월 5일 2면, 그리고 1961년 6월 21일 1면.

서 그 인기를 이어갔다.⁸³⁾

인천의 변두리 극장이 잔존하는 공연으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중구의 극장은 ‘선진화’를 내세우며 여타 극장과 차별화를 내세웠다. 그것은 극장 증가에 따른 도심과 부도심의 개봉관-재개봉관 구도 형성과 그에 상응한 극장별 프로그램 차이의 결과였다. 즉, 동방극장과 마찬가지로 애관 극장이 외화 상영에 주력한 것이다. 또한 애관극장은 뉴스영화 상영을 신문 광고에 게재하여 자신이 세계의 소통 창구임을 자처하였다. 1960년 “애관만이 단독으로 보내드리는 미국 대통령선거전 특보 뉴스 동시 상영”을 강조하는 문구는 그것의 본보기였다.⁸⁴⁾

한편, 소설 『중국인 거리』가 전후 인천을 빈곤한 화교(華僑)와 피난민 그리고 미군과 성매매 여성이 뒤엉켜 살아가는 곳으로 묘사하는 바,⁸⁵⁾ 인천의 도심인 중구는 근·현대 시간이 중첩되는 공간이었다. 즉, 이곳은 화교 커뮤니티(community)와 미군부대⁸⁶⁾ 및 월미도 미군 서비스 클럽을 포함⁸⁷⁾ 기지촌 그리고 대규모 피난민이 모여든 대표적인 이주와 종족의 혼종(昏鐘) 공간이었다. 하지만 해방직후 화교를 대상으로 한 극장 프로그램은 영화와 연극 각 한 편에 그칠 뿐이었으며,⁸⁸⁾ 전후 사정 역시 화교에

게 호의적이지 않았다.⁸⁹⁾ 따라서 화교는 1961년 1월 24일 ‘자유중국 이당화(李棠華) 기예단(技術團)’ 공연 관람을 위해 신포동 인천키네마로 “미어터지게” 몰려들었다.⁹⁰⁾ 하지만 이날 공연을 알리는 신문 광고가 ‘영화팬에게 인사차 김진규 일행 래인(來仁)’이라는 문구를 동반한 것으로 보아,⁹¹⁾ 당일 서커스 공연은 오직 화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화교에 대한 배려 부족과는 대조적으로, 인천의 극장들은 해방과 함께 몰려든 이질적 이력을 가진 내국인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렸다. 그 예로, 해방 직후 인영극장은 귀환자에능대(歸還者藝能隊)의 무용과 만극(漫劇) 그리고 촌담가요(寸談歌謠)를 선보였다.⁹²⁾ 해방과 전후 인천은 출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국인을 포용하는 도시로 변해가는 한편, 외국인을 주변자로 위치시켰다. 따라서 화교의 극장문화 향유는 그들의 집단 거주지인 중구 선린동과 북성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개봉관이 몰린 동구의 극장에서 그나마 가능했다.

4.2. 도심 변두리 극장: 유동(流動)과 접점의 공간

83)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1년 6월 26일 1면과 6월 29일 2면.

84)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2월 7일 2면; 애관극장이 강조한 ‘뉴스’영화는 당시 미공보원이 제공한 리버티 뉴스(Liberty News)로 짐작된다. 참고로 1960년 미국 대선은 민주당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와 공화당 리처드 M. 닉슨(Richard M. Nixon) 사이 치열한 접전을 거쳐 케네디 승리로 끝났다.

85) 오정희, 『중국인 거리』, 오정희·이순·김채원 지음, 『중국인 거리 저녁의 게임 병어회 겨울의 환 외』, 창비, 2005, 38~72면.

86) 해방 이후, 남한에 처음 진주한 미군은 제24군단 7사단 예하의 제17·32·134 보병연대이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 육군 선도대가 인천에 도착했으며, 이튿날 늦게 7사단의 병력과 장비의 하역이 완료되었다. 이후, 인천 지역은 제17 보병 연대에 인계되었다.

87) 1966년 월미도 미군 주둔 부지가 한국 해군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클럽은 1960년대 중반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서비스 클럽의 존재는 1958년 기록까지만 확인된다. 김윤식,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다방』, 한겨레출판, 2012, 90면.

88) 해방 이후 화교를 위한 극장 프로그램은 극소수였다. 1946년 1월 14일 동방극장에서 중국상해영화사 제작 <춤추는 상해>가 상영을 했고, 동년 7월 20일 포관(瓢館)에서

낙랑극회(樂浪劇會)가 ‘중국연극’을 명시한 <뇌우 雷雨>를 상연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오오타 오사무,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 인천의 전기공 I씨의 일기로부터 -』, 『민족문화연구』 제57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334~336면.

89) 이는 1950년 ‘창고봉쇄령’ 이래 실시된 일련의 법령 정책에 따른 한국사회에서의 화교의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지위 위축의 반영이었다. 나아가 1970년대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에 따른 차이나타운의 해체는 화교의 존재를 가시적 영역에서 결정적으로 사라지게 했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박경택 지음,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화교·혼혈인』, 후마니타스, 2010, 157~162면.

90) 전승훈(1942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91)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1년 1월 24일, 2면.

92) 1946년 12월 13일 공연한 귀환자에능대는 손일평(孫一平)과 이화(李和)를 출연진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오오타 오사무,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 인천의 전기공 I씨의 일기로부터 -』, 『민족문화연구』 제57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336면.

전후 인천 지역에서 변두리에 해당하는 동구는 한국전쟁에 따른 상흔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수도국산’으로 불린 동구 ‘송현동 산 1번지’는 만석동과 더불어 월남한 황해도민의 대표적 정착지였다.⁹³⁾ 월남민들은 중구 북성동과 송월동 그리고 답동에서도 거주했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지역은 동구 송현동 일대였다. 그들은 북성부두와 화수부두 그리고 만석부두 등지를 터전 삼아 어업과 부두노동에 종사하면서,⁹⁴⁾ 시장 상인 또는 일일 육체노동자로 살았다.

1960년대 동구 극장을 찾는 주요 관객은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육체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를 누린 자영업자와 저렴한 입장료를 찾는 청소년 등이었다. 이곳 극장의 프로그램은 중구의 극장에서 인기리에 상영을 마친 영화들로 채워졌다. 1950년대 초중반 문화극장에서 상영한 <풍운의 젠다성 The Prisoner of Zenda>(1952)과 <모감보 Mogambo>(1953)는 앞서 중구 개봉관의 인기 작품이었다.⁹⁵⁾

하지만 동구 극장에서 흥행을 누린 영화 장르는 중구의 그것과 일정 정도 차이를 보였다. 애관극장이 멜로드라마를 스크린에 자주 올렸다면, 미림극장은 액션 장르로 인기를 누렸다.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하층민이었던 동구 일대의 극장은 화교에게도 정서적인 위안과 친밀감을 제공

93) 한국전쟁 직후, 만석동 일대는 중구 북성동과 함께 피난민의 집단 수용소가 자리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류제현·김정숙·최유리, 『인천시 아이덴티티 형성의 인구·문화적 요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제13권, 2010년 8월, 229~274면.

94) 화수부두는 증선으로 불린 안강망 어선 200여척이 드나들었으며, 북성부두는 대규모 저인망 어선들이 드나들었다. 1950년대 초반 월미도 앞바다에서 안강망 어선을 이용하여 잡아들인 갈치와 조기 등의 어획량이 높아서 어업노동자와 부두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각각 다음을 참고. 김윤식, 『실업자 7년여의 화수부두 배 목수 전경용 영감님』,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2006.12, 259면; 『팽이부리 사람들』, 『만석신문』 2002년 9월 9일. <http://www.mansuknews.kr/>

95) 존 포드(John Ford) 감독의 미국 MGM 제작 <모감보 Mogambo>는 1956년 동양물산 수입 작품이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83면; 신용길(1942년생)은 그의 10대 후반 문화극장에서 이들 영화를 관람했다.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하는 곳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 지역 거주자와 인천 변두리 지역민이 동시에 드나든 미림극장은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외부적 존재였던 화교에게도 동질적인 감성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개봉관의 입장료는 1960년대에 음식 판매 등의 한정적 경제활동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던 화교에게 반가운 이유였다. 따라서 통칭 “중국영화”로 불린 영화들은 개봉관에서의 상영이 끝난 후 미림극장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소룡 주연의 액션 영화는 애관극장보다 미림극장에서 재개봉할 때 더욱 많은 입장객을 끌었는데, 필름 배급사들도 미림극장에게 “중국영화” 상영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미림극장은 “중국영화의 원산지”가 되었다.⁹⁶⁾

양키시장과 중앙시장⁹⁷⁾ 그리고 송현시장은 동구 지역민들의 생활에 있어 절대적 중심지였는데, 동인천역과 시외버스 정류소와 더불어 유동인구 형성에 따른 극장 활성화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동구의 극장은 인천의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서울과 문화적 접점을 형성하였다. 즉, 동인천역 인근에 미림극장과 문화극장이 있었고, 강화와 김포 등 인천의 서부 지역을 아우르는 시외버스 정류소 근처에 현대극장이 있었다. 한 예로, 주말이면 인천 외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예식장을 오가는 방문자들로 인해 현대극장의 일대는 언제나 붐볐다.⁹⁸⁾ 게다가 1970년대 초반 경인전철의 개통으로 구로와 영등포, 노량진 등 서울 서부 지역 거주자들이 동구 극장을 방문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⁹⁹⁾ 그들은 월미도와 송도유원지 등지를 관광하고 동인천역 주변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

96) 조점용(194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14일.

97) 1936년 중앙시장은 ‘일용품시장’에서 출발하여 1950년 4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중앙시장은 동인천역을 대표하는 지역 시장이었다. 유동현, 『골목, 살아(사라)지다: 수문통에서 백마장까지 인천골목이 품은 이야기』,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2013, 19면.

98) 김진국, 『명멸하는 네온사인, 침침한 공장의 불빛을 영사하다 - 영화감독 권철인』, 『황해문화』 통권 제82호, 2014.3, 306면.

99) 조점용(194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14일.

했다.¹⁰⁰⁾ 동구 소재 극장이 갖는 자유로운 입장 시간과 저렴한 관람료라는 매력 때문이었다. 참고로 서울 지역민의 인천 방문을 증가시킨 대중 교통의 발달은 인천 지역민의 서울 나들이와 그곳에서의 영화 관람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앞서 언급한 문화극장과 현대극장은 동구의 랜드 마크(land mark)였다. 2014년 현재 남구 ‘송의시장 사거리’ 인근에 자리한 청과물시장의 과일도매 상인들은 일명 ‘문화청과’로 불리는데, 이는 해당 상인들이 문화극장 근처 청과시장에서 장사한 전력(前歷) 때문이었다.¹⁰¹⁾ 배다리삼거리부터 문화극장에 이르는 거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참외를 비롯한 청과물의 판매가 이뤄져 채미전거리로 불린 곳이었다.¹⁰²⁾ 하지만 문화극장이 지역민 생활의 중요 지표(index)로 기능하면서 청과시장보다 ‘문화’라는 상호가 인구에 회자(膾炙)한 것이다. 현대극장은 인천 지역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했지만,¹⁰³⁾ 개관 이전부터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이곳은 1960년 11월과 12월 사이 신문 광고를 통해 간헐적으로 공사현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리고, 1961년에는 신년벽두부터 ‘현대, 근일 개봉박두’라는 문구를 게재해 극장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¹⁰⁴⁾ 현대극장은 시민관과 자유극장에서 개봉한 <지평선>(정창화, 1961)을 상영하면서 재개봉관으로 출발했지만, 500평 규모의 2층짜리 극장 건물은¹⁰⁵⁾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100) 조점용(194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14일.

101) 윤현위 · 박은선 · 정원옥 · 양승희/인천학연구원, 『인천 재래시장의 성장과 쇠퇴』, 보고서, 2014, 146~148면.

102) 채미전거리는 동인천역에서 배다리 철로문을 통해 금곡동 · 창영동 · 송림동으로, 배다리를 지나 도원동과 송의동에 이르는 주요 간선도로를 말한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신태범, 『인천 한세기』, 흥성사, 1984, 84면.

103) 유동현, 『골목, 살아(사라)지다: 수문통에서 백마장까지 인천골목이 품은 이야기』,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2013, 27면.

104) 현대극장 관련 광고는 1960년 11월부터 1961년 2월 초반까지 『인천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극장은 개관일은 1961년 2월 9일이었다.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1년 2월 10일, 1면.

105) 유동현, 『골목, 살아(사라)지다: 수문통에서 백마장까지 인천골목이 품은 이야기』,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2013, 27면.

상징적 이정표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현대극장 인근에 들어선 상가들은 그들의 상호에 ‘현대’를 끌어다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현대예식장과 현대시장까지 등장하였다.¹⁰⁶⁾

4.3. 제2도심 부평의 극장: 미군(美軍)부대와 ‘양키딸라’

전후 인천 지역 극장을 둘러싼 여러 문화적 양상들 가운데 반드시 기록할 부분은 미군부대와 기지촌 여성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역에서의 성매매 문제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부터 성병(性病) 검진 등을 이유로 공론의 대상이었다. 즉, 해방 이후 중구 신포동과 신흥동을 포함한 월미산과 문학산에 레이더(radar) 기지 등 미군 부대의 주둔이 시작되면서 성매매 기지촌이 형성되었다.¹⁰⁷⁾ 미군 상대 성매매는 한국전쟁 중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¹⁰⁸⁾ 1951년 12월 ‘인천 여자경찰서’가 여성 경위를 포함, 직원 전체를 동원하여 ‘여자순회계몽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¹⁰⁹⁾

전후 인천 지역 여성의 미군에 대한 관계는 생계를 이유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1953년 미군이 부두 하역을 위해 남성이 아닌 여성 500여 명을 고용하여 ‘생활타개책’을 제공했지만,¹¹⁰⁾ 휴전 이듬해까지도 인천 지

106) 김진국, 『명멸하는 네온사인, 침침한 공장의 불빛을 영사하다 - 영화감독 권철인, 『황해문화』 통권 제82호, 2014.3, 306면.

107) 김보섭(195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21일; 일제강점기 선창(船倉) 일본인 유곽과 함께 선화동 조선인 여성 유곽이 들어섰다. 1950년 2월 현재, 인천 지역 ‘접대부’로 불린 성매매 여성들은 허가받은 330명 이외에 500~600명에 달하는 무허가 영업자들이 존재한 것으로 추산된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이유로 거리에 나선 기혼자들이었고, 그래서인지 지역 언론은 “참다운 교화·선도로 직업의식의 긍지를 갖게 하자”고 역설(力說)하였다. 『접대부들은 이렇게 외친다: 실생활 체험 좌담회』, 『대중일보』 1950년 2월 9일.

108) 1951년 12월 현재 서부전선 인천 등지에서 UN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실시한 80여 명의 여성들은 언론에 ‘무기없는 국제 낭자군’으로 소개되었다. 『양부인(洋婦人) 전선출동, 무기없는 국제낭자군 신출귀몰』, 『자유신문』 1951년 12월 19일자, 2면.

109) 『여자계몽강습회』, 『자유신문』 1951년 12월 19일자, 2면.

역 성매매 종사 여성의 숫자는 주목을 끌었다. 1954년 12월 말 기준 현재 한국 여성 137,265명¹¹¹⁾ 가운데 성병 검진을 받은 ‘접대부’ - 댄서, 위안부와 접대부, 밀창(密娼) - 숫자는 31,339명이었다.¹¹²⁾ 다시 말해, 전체 여성 지역민 가운데 22.8%에 해당하는 자들이 ‘공식적으로’ 성노동(性勞動)에 종사하였다. 그래서인지 인천의 ‘양색시’는 “한 둘이 아니”었고, “그게 뭐 창피하냐고”고 되물을 정도로¹¹³⁾ 일상세계의 일부를 차지하였다.¹¹⁴⁾ 극장 종사자 역시 미군과 동행하여 영화를 관람하는 기지촌 여성이 낮설지 않았다.¹¹⁵⁾ 흥미롭게도,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을 거래한 양키시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인지 기지촌 여성은 ‘양색시’보다 ‘양키딸라’로 불렸다.¹¹⁶⁾

전후 성매매 여성들은 승의동 ‘엘로우 하우스(yellow house)’와 학익동 집창촌 등에서 볼 수 있었다. ‘엘로우 하우스’ 이전을 전후하여 등장한 남구 승의동 도원극장은 ‘승의로터리’ 근처 장안극장과 가까웠다. ‘승의시장사거리’의 ‘승의공설운동장’ 육상장 동북쪽 끝에 위치한 도원극장은 인근에

‘승의강시장’을 비롯한 대장간과 세공업자 그리고 목수간(木手間)과 철물점 등 영세 가게들이 즐비한 곳이었다.¹¹⁷⁾ 따라서 경제적 취약 계층 및 집창촌과 연관된 자들이 도원극장과 장안극장의 주요 관객들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미군부대가 지역민의 생활세계에 절대적으로 관여하여 기지촌 여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 곳은 부평이었다. 부평은 일제강점기 조병창(造兵廠) 등 군수 공장 설립과¹¹⁸⁾ 해방과 한국전쟁을 모두 거치며 주둔한 미군수지원사령부 에스컴(ASCOM, Army Service Command)으로 인하여 군부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곳이었다. 에스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부터 보급(補給)·의무(醫務)·공병(工兵)·통신(通信)·항공부대(航空部隊) 등을 담당하였고, 1960년대 중반 미군해병참모본부와 인천병력교체대기소를 편제(編制)하여 운영하였다.¹¹⁹⁾ 1950년대 군부대를 ‘에스컴 시티(ASCOM City)’라고 명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 미군부대의 장기 주둔은 부평 지역 경제 활황의 발원이자 핵심 요인이었다. 군속(軍屬)과 기지촌 여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일상용품이 부평 자유시장(일명 양키시장)과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110) 『미군당국 요청에 따라서 오백여 부녀자 부두하역(埠頭下役)에 취업』, 인천시청, 『인천공보』 1953년 6월 3일, 2면.

111) 인천시 편, 『시세일람』, 인천시, 1955, 27면.

112) 인천시 편, 『시세일람』, 인천시, 1955, 120면.

113) 신용길(1942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114) 한국전쟁 동안 인천의 미군부대 주둔은 기지촌 여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민에게도 중요한 문제였다. 능통한 영어 실력은 사회적 지위 획득은 물론, 유사시 생사 여부까지 결정하였다. 인천의 체육계와 연예계 그리고 실업계를 두루 대표하는 강세원의 경우가 그렇다 할 것이다. 1922년생 황해도 출신 강세원은 영어에 능통하여 1946년 인천항에서 상하이로 오가는 미군함정의 사무장이 되었다. 그는 함정을 운항하는 도중 우연히 일본인을 도와 통역한 것을 계기로 미군정 범죄수사대(CID,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에서 일하게 되었다. 강세원의 통역관 겸 미군 수사관 생활은 1949년까지 이어졌다. 그는 한국전쟁 동안 인민군에 체포되어 인민재판에 회부되었는데, 과거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면서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왔던 경험 덕분에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김윤식, 『인천의 영원한 클라크 게이بل, 강세원 회장』,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2005.12, 311~323면.

115) 조점용(194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2월 26일.

116) 이한영(1943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117) ‘김윤식의 인천 역사 산책: 14. 사라진 인천의 영화관들’,

<http://blog.daum.net/alzade57/17946072>. 블로그 게재 일자 2010년 11월 17일.

118) 1939년 일제는 대륙 침략을 위한 핵심 병참기지로서 부평에 육군 조병창을 건립하였으며, 1940년 조병창을 확장하면서 홍중공작소(弘中工作所)와 삼릉자동차(三陵自動車) 등 군수 공장을 설립하였다. 신태범, 『인천 한세기: 몸소 지켜본 이야기들』, 홍성사, 1984, 251면; 『시사인천』 2008년 10월 29일.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4>

119) 에스컴은 6의무보급창·제4통신대·미육군 종합 보급창 제55보급창·병기(兵器)중대, 제728헌병대(컴퍼니 디 Company ‘D’) 그리고 캠프 마켓(Camp Market)을 갖추고 있었다. 에스컴은 총 7개의 육군 보급 창고와 이들을 총괄하는 종합보급창 ‘미8군 보급창’을 조직하여 휴전선 인근 주둔 미군부대에 군수물자를 보급하였다. 1971년 에스컴은 ‘121 후송병원’을 용산으로 이전하였으며, 기지 내 부대와 대부분 시설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Camp Carroll)로 옮겼다. 이후, 일부 시설만 남아 캠프 마켓(Camp Market)으로 불렸다. 『시사인천』 2008년 10월 29일.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4>

일제강점기 조병창을 대신하여 등장한 에스컴을 포함한 부평 1동과 2동 그리고 산곡동 일대는 1955년 기준 현재, 부평의 12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호수(戶數)와 인구 총수(總數)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남성보다 여성 인구 수치가 높았는데,¹²⁰⁾ 에스컴(ASCOM)이 영외(營外) 거주 미군과 계약을 맺고 동거 생활을 유지한 기지촌 여성을 대규모로 창출한 것이 그 이유였다. 1950년대 후반 에스컴 주변을 살펴보면, 부평동과 산곡동 그리고 청천동에서 ‘봉사업이나 기타업’에 종사한 지역민의 수는 전체의 절반 또는 4분의 3에 달하였다.¹²¹⁾ 또한 일반 주택의 일부를 임의로 개조하여 만든 방에서 미군과 생활한 기지촌 여성의 수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몇 백 가구”에 이르렀다는 점은¹²²⁾ 부평 지역에 기지촌 여성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미군 주둔에 따른 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부평극장은 한국전쟁 휴전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부터 영화를 상영하였다. 부평극장은 1953년부터 부평 자유시장 로터리 근처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1956년에는 800석 규모의 부평극장으로 새롭게 개관하였다. 이후 부평극장은 1954년 한 해 영화 360회 상영과 연극 88회 상연 그리고 총수입 999,300원에 입장 인원 18,197명을 기록하여,¹²³⁾ 총수입금과 입장객 측면에서 동구 동인천역 인근의 인영극장과 문화극장을 앞질렀다.

120) 인천시 편, 『시세일람』, 인천시, 1955, 25~26면.

121)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제1권』,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435면.

122) 조점용(194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2월 26일; 기지촌 성매매 여성은 클럽 성매매와 계약 동거 성매매를 포함하였다. 1961년 4월 9일자 『경기매일신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평의 일심회를 고발했는데, ‘300여명 위안부의 질서와 계몽을 목적으로 조직된 일심회’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부평의 공식적인 성매매 여성 숫자를 파악 할 수 있다.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권,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443면 재인용; 1960년대 중반 전국적으로 대략 3만 명에 이르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이 존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60년대 말 대략 6만 2천명에 달하는 미군 숫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295~296면.

123) 인천시 편, 『시세일람』, 인천시, 1954, 104면.

1960년대 초반 부평역 근처에서 400~500석 규모의 금성극장과 대한극장이 문을 열었고, 미군부대 일대 산곡동 171번지에 240석 규모의 서부극장이 개관했다. 주로 미군들이 기지촌 여성과 함께 찾은 대한극장은 외화를 전문으로 상영하였고, 부평극장과 금성극장은 한국영화 상영에 집중하였다. 또한 정확한 개관 연도는 알 수 없으나, 백마극장이 서부극장과 그리 멀지 않은 산곡동 87번지에서 365석 규모로 영업을 시작했다.¹²⁴⁾ ‘백마장사거리’ 인근의 백마극장은 미군 병사들, 그중에서도 기지촌 여성에게 동거 계약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미군 병사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출입한 군부대 후문 및 미군형무소 인근에 자리하였다.¹²⁵⁾

재개봉관인 백마극장은 미군부대에서 불법으로 흘러나온 할리우드 영화의 비합법적 상영 장소였다. 이곳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상이군인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¹²⁶⁾ 1962년 백마극장이 “하루에 2개씩” 상영한 필름은 “미군부대에서 가져온 영화 찌꺼기”로 불린 부실한 보관 상태의 서부극 장르의 영화들이었다.¹²⁷⁾ 1950년대 인천의 도심 중구 도원동 근처에 위치한 가설극장 ‘용사회관’과 부도심에 위치한 동구 송림동 ‘재건회관’ 그리고 ‘자활극장’이 군부대의 영화를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면, 군부대 주둔의 대표적인 상징 지역인 부평은 상설극장을 통해 영화 상영의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획득하였다.

산곡동 일대 극장의 관객 대부분은 미군부대 군무원(軍務員)으로 짐작되지만,¹²⁸⁾ 이들 이외에 ‘관동조(關東組)’로 불린 성매매 집창촌 여성들 역

124) 김기제 편, 『한국연예대감』, 성영문화사, 1962, 491~492면; 영화진흥공사, 『영화연감』, 1977, 181면.

125) 부평의 미군형무소는 197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다. 조점용(194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2월 26일.

126) 부평 지역 미군부대와 상이군인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화랑농장 건설을 통해 알 수 있다. 1955년 3월 제8057 부대는 기술 지원과 복구사업 일환이자 상이군인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산곡동 일대에 화랑농장을 조성하였다.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제1권』,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414면.

127) 이한영(1943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시 이곳 극장들의 예상 관객층에서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관동조는 일제강점기 부평의 병참기지 건설 노동자들의 주된 거주 동네를 칭하지만, 그곳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발생하면서 관동조라는 단어는 곧 집창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해방이후 미군들이 ‘뉴욕 스트리트’로 불렀던 이곳 관동조는 이후 성매매 지역으로 통용되었다.

5. 지역민/관객의 극장가기 경험

지역 도심과 변두리 그리고 개봉관과 재개봉관 등에서 나타나는 극장의 위계적 서열화만큼, 지역 관객의 ‘극장가기’ 경험은 지역민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거주지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인천의 동구 송현동 수도국산은 어업과 부두노동 그리고 일용직 등 육체노동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노동에 절대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은 영화를 관람할 기회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극장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수도국산의 거주민을 ‘대중예술로서 영화’를 감상할만한 “고급 인력”이 아닌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다.¹²⁹⁾

수도국산이 극장과 연관된 경우는 문화극장에서 ‘기도(きど 木戸)’로 불린 관객 출입 관리인들의 출신을 논할 때였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깡패의 근거지’로 여겨졌던 수도국산은 ‘날라리패’로 불린 패거리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하여¹³⁰⁾ 이곳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었다. 또한 수도국산 인근 미림극장에서 소매치기 등 범죄가 발생하면서, 극장 측은

영화 상영 전 관객의 조심을 당부하는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일도 벌여졌다.¹³¹⁾ 그래서인지 애관극장과 동방극장 등 도심 극장의 관객들은 동구의 극장을 “질이 좀 떨어지는”¹³²⁾ 곳으로 평가하였다. 도심을 비껴난 극장을 도시 빈민과 연관시키는 일은 애관극장과 동방극장이 “A급이어서” 갈 수 없었다는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¹³³⁾ 동인천역 중앙시장 상인들과 수도국산 거주자들은 미림극장과 문화극장 등을 이용하였고, 중구의 극장을 상대적으로 찾지 않았다.¹³⁴⁾ 정확히 말하면,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1960년대 초반 지역 물가를 고려하면 중구 극장뿐만 아니라 극장을 찾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애관극장과 동방극장에서 상영한 외화는 평균 200환이었으며, 한국영화 입장료 또한 만만치 않아서 1960년 10월 애관극장 <올려고 내가 왔던가>(김화랑, 1960)의 ‘조조할인’ 입장료가 200환이었다.¹³⁵⁾ 1961년 1월 7일 애관극장은 <가거라 슬픔이여>(조공하, 1957) 입장료를 150환으로 내렸지만, 반면 같은 날 정오 현재 지역 물가 목록 가운데 광목(廣木) 한 마는 210환 그리고 돼지고기 한 근(斤)은 500환을 기록했다.¹³⁶⁾ 영화 한 편 관람료가 의식 생활비에 근접하거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심지어 1961년 1월 13일 인천극장의 <이복형제>(김화랑, 1961) 입장료는 광목 한 마 값을 넘어선 250환이었다.¹³⁷⁾

한편, 전후 지역에서 상영한 외화는 집단 정체성 형성에 있어 주요한

128) 1965년 5월 31일 현재 외국기관노동조합 부평지부의 조합원수는 3,16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2,900명이며 여성은 266명으로 보고된다.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외기노조 20년사』,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위원회, 1981, 66면.

129) 조점용(194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14일.

130) 주경국(1943년생) 질문지 답변. 답변일 2016년 3월 5일.

131) 조점용(194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14일.

132) 신용길(1942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133) 이한영(1943년생)과 주경국(1943년생)의 구술. 이들은 송현동과 송림동에서 성장하며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문화극장과 미림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134) 김보섭(1955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21일.

135)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0년 10월 13일, 1면.

136)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1년 1월 7일, 2면과 1961년 1월 8일, 1면.

137) 인천신문사, 『인천신문』 1961년 1월 13일, 1면.

매체였다. 입장료 측면에서 극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서든’ 영화를 관람하고 학교에서 또래들과 그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대화를 나누는) 거기에 못 끼면 촌놈” 대우를 받았다는 그들의 구술 증언은 당시 공감대 형성의 주요 매체로서 영화의 역할을 대변한다. 당시의 영화들 가운데 속도와 압도적인 스펙터클을 자랑하는 <베라 크루즈 Vera Cruz>(1954)와 같은 서부극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¹³⁸⁾ 서부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셴 Shane>(1953) 주인공 알란 랫드(Alan Ladd)가 총을 쏘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문장이 등장할 정도였다고 전한다.¹³⁹⁾

한마디로, 외화 상영 극장은 새로운 문화를 충격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장이었다. 1960년대 초반 늦은 겨울 밤 연탄난로를 피워놓은 승의동 장안극장에서 <괴인 드라큐라 Horror of Dracula>(1958)를 관람한 10대 청소년은 추위 때문이었는지 드라큐라에 대한 무서웠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¹⁴⁰⁾ 또한 동구 가설극장 ‘자활극장’이 상영한 스페인 영화 <나의 노래를 들어주소 Escucha mi Cancion>(국내 제목은 프랑스 제목 <엄마 찾아 삼만리>) 가운데 고기를 “구워먹는” 장면은 전후 경제적 빈곤에 놓인 청소년 관객에게 놀라운 일이었다.¹⁴¹⁾ 게다가 이태리영화 <철도원 Il Ferrouiere>(1956)과 그리스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 Pote Tin Kyriaki, Never On Sunday>(1960)에 등장한 여배우의 신체는 한국

사회에서의 성도덕을 위반하는 ‘충격적’ 불거리로 다가왔다.¹⁴²⁾

따라서 외화는 서구와 한국의 문화적 격차를 확인시키는 매개이기도 하였다. “학비 마련에 절절매는” 대학생들은 자가용을 이용한 남녀 데이트 장면을 담은 <초원의 빛 Splendor In The Grass>(1961)을 관람하고 “극장 문을 열고 나오면 천국에 있다가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70mm 필름으로 제작한 <벤허 Ben-hur>(1959)를 70mm 영사기를 갖춘 서울 대한극장에서 “못 보고 한 바퀴 돌아서 미림극장에서” 관람하여 무척 안타까웠다고 말한다.¹⁴³⁾

극장에서 만나는 서구 문화에 대한 감탄과 그것이 수반한 열등감은 극장 밖 현실 즉, 1960년대 기술(technology) 후진국인 한국 남성의 정체성을 자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키네마에서 <상(上)과 하(下) Enemy Below>(1957)를 영사하면서 그 영화를 관람한 영사기사 전승훈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상과 하>는 1958년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수상한 작품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미국 구축함(驅逐艦)과 독일 잠수함(潛水艦)을 앞세우며 스펙터클(spectacle)을 보여준 작품이다. 전승훈은 <상과 하>를 관람하면서 ‘재미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저런 배를 언제 만드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고 전한다. 전쟁의 파괴력에 대한 생각보다 선진 기술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지, 아니면 비밀비재하게 발생하는 영사기 고장으로 신포동 사거리 라디오가게 기술자를 불러 수리하는 번거로움 때문이었는지 전승훈은 영사 기술 관련 지식 습득에 열성적이었다.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독학으로 영사기 사운드 증폭

138) 주경국(1943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베라 크루즈>는 1956년 칠양영화사 수입 작품이다.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83면.

139) 이한영(1943년생)과 주경국(1943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영화 <셴 Shane>은 1956년 불이무역이 수입·상영하였다.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83면.

140) 김윤식(1947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31일; <괴인 드라큐라>는 1959년 수입·상영 작품이다.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96면.

141) 이한영(1943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142) 이한영(1943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철도원>은 1959년 불이무역 수입 작품이고, 1962년 유니온영화사 수입 작품 <일요일은 참으세요>는 1962년 7월 6일부터 3년 동안 상영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98면과 110면.

143) 이한영(1943년생)과 주경국(1943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1962년 세기상사는 <벤허>를 수입·상영하여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에 대해 다음을 참고.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109면.

(amplifier) 기술은 물론 라디오와 TV의 작동 원리를 터득하였다.¹⁴⁴⁾ 전쟁 영화가 추동한 과학기술에 대한 열망이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만나면서 영사기사의 일상을 변화시킨 것이다.

6. 맺음말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 극장 산업과 도시 공간 그리고 관객성을 경유하여 인천 지역 극장 문화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기술·분석하였다. 전후 인천은 대북(對北) 체제를 위한 전략적 주요 도시이자 문화를 통한 냉전체제 구축의 주요 대상지였다. 이에 따라, 한미문화관과 같은 공적 기관은 지역민 계몽과 위무(慰撫)를 앞세우며 미국적 가치와 이념을 담은 영화 상영을 주도하였다. 인천에서의 미군부대 주둔은 상이군인의 가설극장 운영과 긴밀히 연관되었다. 특히, 군사 특구(特區)인 부평의 에스컴은 극장의 장소적 특징을 비롯해 관객성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 인천의 도시 확산과 함께 흥행 자본에 기반을 둔 신생 극장이 등장하였고, 이는 도시 구역별 다양하고 위계적인 극장 문화를 수반하였다. 도심과 부도심 또는 변두리 극장 간 개봉관과 재개봉관 구도 형성과 극장 프로그램 구성은 그러한 차이를 보였다. 인천 지역 극장 관객성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지역민/관객의 영화 관람과 극장가기 경험이 도시 공간에 따라 차이를 보인 사실이다. 중동구의 화교 집단과 경제적 취약 계층이 액션 장르와 같은 특정 장르를 선호하면서 인천 도심 소재 극장 프로그램과 일정 정도 차별적인 흐름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인천 지역 극장 문화는 한국사회 주요 도시의 그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가족주의에

근거한 분가 형식의 극장 설립/개관과 재건 도시 지역민의 각박한 생존 방식을 반영하는 경쟁적 극장 운영 그리고 지역민 일상 가운데 자리한 미군부대의 주둔은 인천 지역 극장 문화의 변별성이라 할 것이다. 이는 동시기 군사 도시로서 절대적 지위를 부여받은 강원도 춘천과 원주의 그것과 비교·분석에 있어서 유용한 지점을 제공한다. 춘천의 도심을 차지한 미군부대 캠프 페이지(Camp Page)와 원주의 도시에 자리한 군인극장은 극장 문화를 비롯해 지역민/관객의 정서구조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인천 지역 극장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 성과물을 체계화하고 극장 문화의 역동적인 양상을 재구성한 점에서 연구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인천 지역 극장 관객성을 본격적으로 다룬 점에서 심층적 극장 문화 연구의 기점(起點)을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일상생활 경험의 일부이자 정체성 획득과 재구성 매개로서 극장의 역사성(historicity)을 규명하고, 문화 향유 주체로서 지역민을 영화사 기술(記述)의 대상으로 위치시킨 점에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몇 가지 연구를 더욱 필요로 한다. 첫째, 인천 지역 관객성 연구에 있어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이 글에서 여성 관객성 분석이 배제된 이유는 인천 지역 극장 문화를 증언한 구술자들 대부분이 해당 시기 극장 관련자들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또한 관객 주체로서 자신의 극장가기 경험에 대해 증언할 노년 여성을 발굴하는데 드는 어려움도 작용하였다. 둘째, 일상 생활세계의 일부로서 극장 문화의 미시적 수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 극장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뛰어넘어 냉전체제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극장의 장소성과 문화적 실천 양상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요청된다. 이는 전후 인천을 비롯한 여타 지역 극장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물의 축적과 함께 문제의식을 재구성하면서 풀어가고자 한다.

144) 전승훈(1942년생) 구술.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경기문화사, 『인천연감』, 1955.
 국제영화사, 『(1970)영화·연예연감』, 1969.
 김기제 편, 『한국연예대감』, 성영문화사, 1962.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1권,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영화진흥공사, 『영화연감』, 1977.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 초창기~1976년』, 영화진흥공사, 1977.
 인천광역시 중구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사: 상(上) 발자취와 사람들』,
 인천광역시 중구문화원, 2010.
 인천시 편, 『시세일람』, 인천시, 1954.
 한국영상자료원, 『신문기사로 본 한국영화 1958~1961』, 공간과 사람들, 2005.
 『대중일보』, 『동아일보』, 『만석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시사인천』, 『인
 천공보』, 『인천신문』, 『인천일보』, 『황해문화』
- 김보섭(1955년생, 사진작가·전 동인천극장 운영자)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21일.
 김윤식(1947년생, 시인·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구술. 구술일자 2015년 8월 31일.
 신용길(1942년생, 영화 마니아·전 경인일보 기자) 구술. 구술일자 2014년 10월
 30일.
 전승훈(1942년생, 전 인천키네마와 동방극장 영사기사) 구술. 구술일자 2014년 10
 월 30일.
 조점용(1945년생, 전 전국영사기사협회 사무국장·전 미림극장 영사실장), 구술
 일자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2월 26일.
 주경국(1943년생, 미림회 회원) 질문지 답변. 답변일 2016년 3월 5일.
 주경국(1943년생, 미림회 회원)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이한영(1943년생, 미림회 회원) 구술. 구술일자 2016년 3월 6일.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2010000437>.
 김윤식의 인천 역사 산책: 14. 사라진 인천의 영화관들,
<http://blog.daum.net/alzade57/17946072>. 블로그 게재일자 2010년 11월 17일.

- 인천광역시, 『굿모닝인천』 제260호(2015년 8월) <http://goodmorning.incheon.go.kr>
 ‘토마스 모어의 영화방’ 블로그
<http://blog.naver.com/cine212722?Redirect=Log&logNo=100171052259>

2. 단행본

- 강성률,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 한겨레출판, 2014.
 고일 저, 『인천석금』, 경기문화사, 1955.
 김득중·강성현·이임하·김학재·연정은·후지이 다케시, 『죽음으로써 나라
 를 지키자: 1950년대, 반공·동원·감시의 시대』, 선인, 2007.
 김윤식, 『도시와 예술의 풍속화 다방』, 한겨레출판, 2012.
 김은형, 『끈질긴 삶터 달동네』, 한겨레출판사, 2015.
 박경택 지음,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화교·혼혈인』, 후마니타스,
 2010.
 신태범, 『인천 한세기: 몸소 지켜본 이야기들』, 흥성사, 1984.
 오정희·이순·김채원 지음, 『중국인 거리 저녁의 게임 병어회 겨울의 환 외』,
 창비, 2005.
 유동현, 『골목, 살아(사라)지다: 수문통에서 백마장까지 인천골목이 품은 이야기
 』,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2013.
 유동현, 『동인천 잇다 있다: from 1899 to 2015 굴다리에서 채미전까지』, 인천광역
 시 대변인실, 2015.
 윤현위·박은선·정원옥·양승희/인천학연구원, 『인천 재래시장의 성장과 쇠퇴
 』, 보고서, 2014.
 이영일 지음,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인천광역시 동구 편, 『아! 옛날이야: 추억속의 동구이야기』, 인천광역시 동구,
 2008.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외기노조 20년사』,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위원회, 1981.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
 원, 1999.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의 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1974.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3. 논문 및 평론

- 김남석, 「인천 애관(愛館) 연구 - ‘협률사’ 설립에서 1945년 광복까지」, 『인천학연구』 제17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2.
- 류제현 · 김정숙 · 최유리, 「인천시 아이덴티티 형성의 인구 · 문화적 요인」, 『인천학연구』 제13권,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0.
- 오오타 오사무, 『해방직후 어느 노동자의 일상생활 - 인천의 전기공 1씨의 일기로부터 -』, 『민족문화연구』 제57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 위경혜, 「한국전쟁 이후 극장 문화 로컬리티(locality): 강원도 도시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7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12.
- 조준형, 「1960-70년대 공급중심 영화산업 체제와 상영영역의 이중적 지위 : 서울 개봉관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4.

Abstract

The Cultural Landscape of Movie Theaters

- Incheon in the post-Korean War era -

Wee Gyeonghae

This work examines the historicity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movie theaters in the city of Incheon, in the western part of Korea, a typical city in which sociocultural hybridity is represented by the presence of overseas Chinese, war refugees, the US armed forces, industrial workers, and so on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1950-1953).

This paper explores three dimensions of the cultural landscape of movie theaters in Incheon. First, I examine the organization of film exhibitions, not in the regular movie theaters, and the programs they offered. Second, I look 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ovie theaters in connection with the changing and differentiating city space and the placeness of the movie theaters from the late 1950s to the 1960s. Third, I study the local film audiences and their cinema-going experiences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in the Cold War regime. As part of my study, I analyze written documents about the city of Incheon, oral testimonies from people involved in the movie theaters, cultural organizations, and film audiences in the city.

Film-screening activities by temporary movie theaters were remarkable during the 1950s in the city. The “Korea and the US Cultural Center,” supported by both the USIS (United State Information Service) and the city of Incheon, and the disabled veterans’ temporary theaters, which were interlinked with the American Army base for informal film distribution, exhibited several Hollywood films, thus functioning as channels to spread the unfolding story of the “American” nation and its values. Given the growth of the movie

theaters in the city during the 1960s for making quick profits, the first-run movie theaters fiercely competed with each other for survival, some even going to the extent of showing film scenes without censoring the “prohibited” scenes to attract viewership.

The movie theaters in the city formed a hierarchy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space of the city in which they were located: that is, the first-run movie theaters were in the downtown area and the new ones opened in the suburb of the city.

The cinema-going experiences of the film audiences were various according to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occupation during that time. To the film audiences, Hollywood films provided entertainment and an escape from the hardships they faced after the Korean War, functioned as workbooks through which they learned about Western society, and helped them absorb the cultural shocks they experienced while living in the system of American values. Nonetheless, the sophisticated lifestyle and material affluence represented in Hollywood films evoked in film audiences an uncomfortable awareness of their own difficult financial status at that time. Hollywood films thus gave an impetus to the young male cinema audiences to learn technology related to films—in a way a manifestation of Korean nationalism.

The most noticeable thing that characterized movie theaters in the city of Incheon was the presence of a huge number of Americans stationed in the army base ASCOM (Army Service Command) in the Bupyeong district, the eastern part of the city of Incheon, and “army wives” who earned their livelihood from the military camp. These prostitutes from the red-light district were the main audience in movie theaters with Korean male workers helping the operations of the American army base in the district. In conclusion, the cultural landscape of movie theaters in the city of Incheon after the Korean War suggests diverse aspects of the locality of both film exhibitions and cinema-going experiences in the context of the “cultural cold war.”

Key words : American Army Base, ASCOM (Army Service Command), Cinema-going Experience, Cultural Center, Culture Elite, Disabled Veteran, Film Exhibition, Incheon, Informal Film Distribution, Itinerant Film Exhibition, Korea and the US Cultural Center, Korean War, Movie Theater, Red-light District, Temporary Theater, The Overseas Chinese, Military Wives, USIS (United State Information Service)

접수일: 2016년 7월 31일

심사기간: 2016년 8월 15일~8월 28일

게재결정: 2016년 9월 13일